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내 주 하나님 넓고(408) 오 놀라운 구세주(44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28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시편23:5	인 도 자
설 교	사람은 믿는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42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정순영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2월 4일 제2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타락하여 살만하지 못한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원리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기쁨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람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처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사용하여 익숙하였던 도구가 내 발등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지 낯설고 생소하여 처음 사용하는 도구가 발등에 상처를 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일의 대부분은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받는 상처는 가장 믿었던, 가장 의지하였던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에 상처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은 결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결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믿지도 의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기에 이런 사람의 배신은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 기분은 나쁠 수 있으나 마음 깊숙이 상처를 남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받을 상처를 두려워하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축복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완벽한 사람과의 관계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기에 회복의 기쁨이 있고, 상처가 있기에 사람은 성숙하고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에 잘못 반응하는 것임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뼈가 부러져 고통을 받을 때 치유하는 단계가 항상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있는 단계입니다. 수술 후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깁스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깁스를 제거하고 손을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부러진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뼈가 붙고 난 후엔 자꾸 움직여야 붙은 뼈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상한 마음으로 인해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46: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나 조용히 있는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는 결코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줍니다.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일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좀처럼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라고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아침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치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예배 후 1월 재정보고와 1월에 적립된 선교비 사용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3. 설교CD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결석자나 우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할 동역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150.00	
주일헌금:	$17.00	
특별헌금:	$10.00	**합 계: $177.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